

손금

정읍여자고등학교 2-1 안수빈

손금에 M자 모양의 선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으면 그 손금은 부자가 되는 손금이랬다. 엄마는 내가 부자가 될 거라고 했다. 자주 그랬다. 내가 부자가 될 거라고. 손바닥에 M자 모양 선 하나 있을 뿐인데 내 미래가 결정되어 졌다니. 그럼 M자 모양이 더 크면 더 부자가 되는 거냐는 나의 물음에 엄마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했다.

어쨌든 간에 내가 부자가 될 운명이라는 것 하나는 분명한 사실이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엄청 자랑하고 다녔다. 이것 봐라, 나는 M자 손금도 있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난 이 손금 때문에 나중에 커서 부자가 될 거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대의 남자아이는 무엇이든 자랑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 내가 어제 탕수육을 먹었던 것, 이제부터 내가 구몬 학습지를 풀게 된 것. 사소한 것부터 자기가 생각하기에 엄청난 것까지 하나하나 모두 자랑해야 했다. 그리고 손금은 그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엄청난 일에 속했다.

한해 두해 점점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가 바뀌면서 손금 자랑은 사그라 들었다. 그런데 어른들은 아니었는 모양이었는지 손금도 성형하고 있었다. 손금을 성형해서 뭐하지? 다 가짜다. 가짜 부자, 가짜 행운아. 가짜 손금이 아무리 늘어나도 내가 부자가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진짜니까. 나는 공부도 남들처럼 죽어라 하지 않아도 된다. 좋은 대학에도 안 가도 된다. 난 언젠가 반드시 부자가 될 테니깐! 돈은 얼마쯤 얻게 되는 걸까?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한 5조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최대한 빨리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 스물 다섯 정도에.

그러나 나는 지금 서른일곱 살이고, 별 볼일 없는 지방대를 나와서 취직도 안 하고 알바 몇 번 해본 게 전부인 백수다. 곧 사십 세가 다 되어 가는데 이놈의 손금이 일을 할 생각을 안 한다. 설상가상 엄마도 아파서 내가 돈을 벌러 다니는 수밖에 없다. 알바는 정말 하기 싫은데……. 그래도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하고 일단 살아있어야 부자가 될 테니 알바자리를 구해야겠다 싶어 야간 편의점 알바를 어렵사리 구했다.

편의점 계산대에 있으면서 복권을 사 가는 사람들을 종종 봤다. 왜 지금까지 복권 살 생각을 안 했지? 손금이 일을 할 기미가 안 보이면 내가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데. 그때부터 복권을 샀지만 항상 팡이다. 단돈 오천 원짜리 복권에도 걸려본 적이 없다. 그래도 이렇게 매일 사서 기다리면 언젠가 당첨하는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난 부자가 될 거니까. 내 손금이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엄마가 이상하다. 아니, 이상했다. 자꾸 끄끄 앓고 누워있고 속을 게워내기도 한다. 자주 감기 같은 거에 걸리긴 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디 아프냐는 말에 독감이라 길래 그런 줄로만 알았다. 하루 빨리 내가 부자가 되어서 우리 엄마 안 아프게 해 줘야 할 텐데. 늙은 우리 엄마 더 안 늙게 해 줘야 하는데. 그런데 일이 나버린 것이다.

야간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씻고 엄마 방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없는 게 아닌가. 엄마가 부엌에 어정쩡하게 누워 있었다. 뭔가 이상해서 엄마를 계속 깨웠는데 곤히 잠들었는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날 생각을 안 했다. 엄마 몸의 체온도 평소보다 훨씬 낮았다. 코아래에 손가락을 갖다 대었는데, 엄마가 숨을 안 쉬고 있었다. 황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엄마는 떠난 후였다. 내가 부자가 될 거라면서 부자가 된 내 모습도 못 보고

떠나버렸다. 그래서 이제부터 언제 가입해 놓은 건지도 모르는 사망보험의 보험금, 그니까 엄마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그 돈과 함께 이제 정신 차리고 열, 아, 진짜 못 하겠다. 거짓말은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천륜을 저버렸습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라면서 이 나이 먹도록 아르바이트나 하는 나 자신이 너무 짜증나고 나한테 부자가 될 거라는 헛소리를 한 엄마도 너무 싫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막막한데 엄마는 너무 늙어서 골골대고 엄마가 돈을 못 버니 앞날이 캄캄해서, 그래서 뉴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를 죽이고 돌아가신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이나 타서, 그걸로 살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보험금도 너무 조금이고, 들통날까봐 불안해서,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어요. 자백했으니까 좀만 봐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저지르겠습니다. 엄마 미안. 보험회사 직원들도 미안해요. 그니까 저 한번만 봐 주세요. 나는 그냥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냥 몇 조, 아니 몇 억만 받고 싶었는데, 아, 미치겠습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니까 제발요. 한번만.